



풍성하고 다양한
명절선물이 한자리에 모이는
8.26(수)~29(토)

2009 **한가위** 명절선물산업전

주최 | 대한급식신문 · 메세E&D 후원 | 농림수산식품부 · KBS 교통방송



풍성한 한가위를 위한 2009 명절선물산업전 개최!

글·사진 : 편집부

2009 한가위 명절선물 산업전 Gift Fair 2009

목적 명절 선물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제시
전통산업발굴 및 우수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
명절 선물산업의 정보교류와 유통 활성화
새로운 선물시장 발굴을 통한 상품개발 촉진

기간 2009. 8. 26(수) ~ 29(토)

장소 코엑스

주최 메세E&D · 대한급식신문

8월 26일부터 3일간에 걸쳐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
만나는 직거래 장터 방식의 '2009 한가위 명절선물
산업전' 이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. 농림수산식품부
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양말세트, 지갑, 액세서
리 등 생활용품부터 건강보조식품, 농·수·축산물,
전통주 등 70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선물상품을 전
시관을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전시하였다.

특히 이번 명절선물산업전은 정부가 인증하는 국내
식품명인들의 상품과 전통가공식품을 비롯한 지방
자치단체의 대표 브랜드인 보성녹차, 순창고추장 등
지역 특산품들도 소개되었다. 민족 최대명절 중 하나
인 추석을 한 달 남짓 남기고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

Gift Fair 2009



소비자들은 생산자들이 직접 와서 판매하는 상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. 본회 회원사인 (주)신촌자연오리와 모리식품은 오리고기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맛있고, 질 좋은 명절 선물세트를 소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.

(주)신촌자연오리는 오리고기 소시지를 비롯하여, 떡갈비, 햄 등 신제품을 출시하였는데, 특히 오리고기 소시지는 오리고기 함유량 약 80%로 순한 맛, 매운 맛, 불고기 맛 등을 선보이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입맛에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. 또한 떡갈비는 기존의 유통처리 냉동 제품에서 훈연을 한 냉장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하였다. 신제품은 모두 제주 청정지역에서 사육된 무항생제 오리만을 사용해 간간한 주부층을 공략함과 동시에 급식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.

(주)신촌자연오리 경영지원부의 김훈 과장은 “지난 번 우수급식산업대전으로 많은 효과를 보았다”고 전하면서 “이번에 대리점을 새로 구축하면서 전국 10개 대리점으로 개편하여 급식산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이날 모리식품 역시 오리훈제 제품 시식회를 통해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, 훈제오리 선물세트를 소개하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.

